

‘차 예법에 대해서’

자노유를 맞보다: 우라쿠엔에서의 다도 체험

우라쿠엔의 '고안(弘庵)'에서는 전통 자노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끼와 징검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고즈넉한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차를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우라쿠엔의 다도 자리는 차를 끓이는 등의 절차가 몇 가지 생략된 약식 다회(茶會, 차모임)입니다. 고안의 다사(茶事)는 차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식 다회와 마찬가지로 의식화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차 예법에 대한 각 절차와 간단한 설명입니다.

1. 자리에 앉는다.

다회에 초대받은 손님은 무릎을 꿇고 앉는(정좌라고 불리는 앉는 방법) 것이 일반적이지만, 책상다리를 하거나 옆으로 앉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직원이 화과자가 놓인 접시를 낸다.

화과자에는 나무막대(구로모지)가 딸려 있습니다.

3. 왼손으로 접시를 들어올린다. 오른손으로 나무막대를 들고, 화과자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먹습니다.

화과자는 앞으로 마실 말차의 맛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차가 나오기 전에 다 먹습니다.

4. 직원이 말차 찻잔을 눈앞에 두고 가볍게 인사를 한다. 양손의 손가락 끝을 무릎 앞 바닥에 대고 그 인사에 답합니다.

정식 다회에서는 옆에 있는 손님(아직 차가 나오지 않은 손님)에게도 인사를 하여 먼저 마시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5. 오른손으로 찻잔을 들어 엄지손가락을 가장자리에 대고, 다른 손가락은 바닥에 가까이 가져가 왼손 손바닥에 찻잔을 올린다.

6. 허리 높이로 찻잔을 들고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다.

정식 다회에서는 주인이 각각의 찻잔 ‘정면’(보통은 주된 장식 요소가 있는 쪽)을 손님 쪽으로 둡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나타냅니다. 답례로 손님은 찻잔 정면에 직접 입을 대지 않음으로써 겸허함을 표합니다.

7. 마신다.

박차(薄茶)라고 불리는 이 말차를 만드는 방법은 농차(濃茶)에 비해 적은 양의 찻잎으로 만듭니다. 농차는 일반적으로 여러 잔의 차가 나오는 본격적인 다회에서는 식후에만 제공됩니다.

8. 다 마시면 오른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댄 찻잔의 가장자리를 닦는다.

찻잔을 닦는 것은 청결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참가자들이 같은 찻잔을 돌려가며 차례로 마시는 방식에서 생겨났습니다.

9. 찻잔 정면이 자신의 맞은편을 향하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바닥에 다시 놓는다.

이때 찻잔을 찬찬히 보면서 모양과 장식을 감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회에서 사용하는 찻잔은 귀한 것이 많으므로 찻잔을 바닥에 가까이 두고 감상해 보도록 합니다.

10. 차를 다 마시면 직원이 도코노마(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의 족자와 꽃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이 장식들은 각각 계절에 맞게 특별히 선택된 것으로, 대부분은 주인이 전하고 싶은 분위기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